

르 꼬르뷔제의 공간구성요소로서 가구사용 연구

- 빌라 사보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cial Usage of Le Corbusier with the Built-in Furniture

- Focused on Villa Savoye -

Author 김소희 Kim, So-Hee / 정희원, 동명대학교 건축대학 실내건축학과 부교수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understand the spacial usage of the furniture in detail for interior architecture. Many documents have prescribed the spacial furniture at random. While modernist have been interested in the spacial usage of the furniture, the importance of the spacial furniture stands out in architectural space. Since long ago, a great deal of effort has been put into creating a relational harmony between the space and furniture. The villa, the weekend home of the Savoye family, was built between 1928 and 1931. Particularly, the villa Savoye was focused for this study. Le Corbusier viewed desks and case pieces for storage as architecture, and he unite furniture and architecture by developing cabinets in standard modules that could be painted either the wall color to become part of the wall or in contrasting colors to stand out as furniture. Spacial furniture was used architecturally in the interior as well, it gives the space an unexpected playfulness with the color of the finishing materials. The various usage of the Spacial furniture constitute an element of great architectural richness. They have a unique principle based on emotional order and make the man move to another space and experience the spacial connection. In particular, the furniture that was considered by Corbusier have rational function, division of the space, leaning the structure, and so on. The furniture as the element of the space composition can change the architectural space and view as well as connecting each other. Spacial furniture appear as physical ones called wall, floor, column, and existential value as a living space.

Keywords 근대성, 기능적 가구, 공간적 가구, 붙박이장, 칸막이벽, 건축형태, 동선
Modernism, Functional Furniture, Spacial Furniture, Built-in Furniture, Partition, Architectural Form, Circul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 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 창의적 공간의 생성원인 평면과 구체적 실체로서의 표피 즉 마감 재료와 색채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간 속의 가구는 애초에 건축 공간구성 및 의도와는 다르게 단순히 선택되어지고 장식적인 의미로 적용되기 쉽다. 그러나 우리 생활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로 인식되는 모더니즘 공간에서 가구의 적용은 단순히 장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공간속에서 함께 흡수되고 배치되어 진가를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디자이너들은 주지하고 있다. 즉, 공간 속에 배치되는 가구는 공간의 성격과 인간의 행동을 규정짓는다. 단순히 장식적 혹

은 기능적 의미로 선택된 가구는 기존의 건축 공간과 컨셉을 무시한 채 전혀 다른 공간을 생산한다.

근대 건축의 거장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는 자신의 작품 속에 필요한 가구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도입한 가구 디자이너로도 유명하다. 그는 건축을 건물뿐 아니라 외부 공간에 있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건물 내에 있는 의자, 테이블과 같은 가구까지 하나의 일관된 체계라고 말하고 있다.¹⁾ 이는 르 꼬르뷔제가 건축계획 과정 속에 가구를 개입시켜 건축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 공간의 구성요소로서 가구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이해를 통하여 가구가 공간속에서 건축화되고 공간을 표현하는 필수적이고 통합된 역할을 함을

1) Le Corbusier, Le CORBUSIER :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서울, 2001, pp.59-60 제서술

밝히고자 한다. 특히, 근대성과 함께 공간의 효율성, 경제성, 융통성을 드러내는 기능적 가구, 공간적 가구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 르 꼬르뷔제의 가구에 대한 건축 공간적 이해를 확고히 하여 현대 건축 공간에서 가구의 배치와 적용에 있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화, 건축화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가구가 공간구성요소로서 건축 형태와 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르 꼬르뷔제에 대한 연구는 근대 건축의 5원칙, 주택의 4형식, 건축적 산책로, 모듈러 등과 같이 건축물의 형태적 요소와 공간 구성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이와 함께 재료와 패턴, 색채, 가구 등 디자인 요소로서의 공간 사용에 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용자와 배치될 장소에 관계없이 제작되어 기능성만을 충족시켜 획일화된 가구가 공간 속에 들어갔을 때 건축물과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어려우며 이것은 디자이너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본 연구는 가구가 어떻게 건축에서 디자인의 요소로서 표현되어 형태적, 공간적 변화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건축 공간의 가능성을 변화시킬 요소로서의 가구는 기능적 가구와 공간적 가구의 불박이 가구 등을 포함하여 건축 계획 처음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특성과 공간 적용 과정이 본 연구의 범위이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르 꼬르뷔제의 가구에 대한 사상과 이해를 근대성을 근간으로 고찰하고 근대의 기능성과 공간성은 건축 공간에 사용된 기능적 가구와 공간적 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근대 건축 공간에서 가구의 등장은 주거 영역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르 꼬르뷔제의 대표 작품인 사보아 주택을 대상으로 르 꼬르뷔제가 공간속에서 가구가 어떠한 형식으로 사용하고 공간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건축물의 외형적 형태 특성이 내부 공간의 가구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지, 동선과 시선 처리 등 공간적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를 통하여 근대에서 가구 요소의 건축 공간화 양상을 사보아 주택의 공간적 가구, 기능적 가구의 사용으로 분석하며 공간 적용의 가능성을 도출한다.

2. 르 꼬르뷔제와 가구

2.1. 근대성과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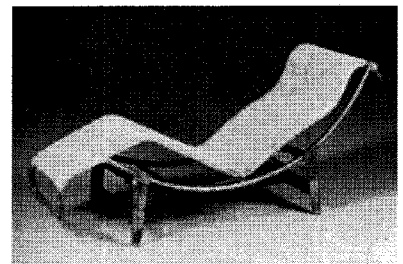
르 꼬르뷔제는 "...유용한 사물은 장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운과 역경의 동반자로서 그것들은 영혼을 지녀

야 한다. 장식된 사물에 결합된 영혼들은 우리의 슬픈 운명을 장밋빛으로 바꾸는 빛나는 분위기를 창조한다. 우리는 마음을 위로하며 부드럽게 도취시키는 장식을 통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토로함으로써 기계시대의 공허를 대응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생활에 유용한 사물들이 예전의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그 사물들 자체가 바로 노예, 종, 머슴들이다. 우리는 그 위에 앉고, 그 위에서 일하며, 그것들을 사용하고, 모두 써버린다. 모두 써버린 후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2)라고 언급하여 공간에 새로이 등장하는 가구에 대해 근대성을 바탕으로 확고히 하고 있다.

20세기의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은 사회적,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수립하고자 다양한 유형의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그 중 가구-특히 의자-를 미적이고 사회적이면서 이념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르 꼬르뷔제와 알바 알토, 미스 반데 로에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더니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축가이자 가구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3)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여 구조용 철강재료, 철근 콘크리트, 유리와 같은 신재료와 냉방장치, 엘리베이터, 전기기구, 조명장치, 공기조화설비 등과 같은 전기기계설비들이 발전하고, 신공법들이 발명되던 20세기 초, 르 꼬르뷔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과거 복고주의와 절충주의를 비판하며 새로운 건축을 모색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은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4)

르 꼬르뷔제는 '건축의 영역이 가정 설비의 모든 세부적인 것, 주택 뿐만 아니라 거리, 그리고 그 둘을 훨씬 초월한 더 넓은 세계를 포용해야 한다.'고 믿



<그림 1> 르 꼬르뷔제, 긴 안락의자, 1928

었다. 르 꼬르뷔제는 마이클 토네(Michael Thonet)에 의해서 19세기 초반에 디자인된 곡목의자(Bentwood Chair)에서 착안하여 재창조한 원형의자를 국제 박람회 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그는 사보아 주택에 있는 등과 발받침을 조절할 수 있는 긴 안락의자를 디자인 하였는데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발을 머리보다 더 높게 공중에 두고 벽난로 선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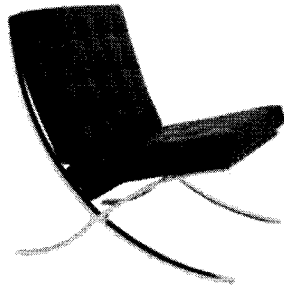
2)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p.15

3) 이진영, 르 꼬르뷔제와 알바 알토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4, p.162

4) 하성경, 통상 성당의 가구요소와 형태구성의 상관관계, 한남대석론, 2002, p.7

기대어 있는 서부 카우보이를 생각했다. 이것이 완벽한 휴식이다. 등과 발받침을 조절할 수 있는 이 긴 안락의자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놓일 수 있다. 내 체중만으로도 그것을 쉽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기술자가 따로 필요없다. 이것이야말로 휴식을 위한 진정한 기계다.”라고 표현했다.⁵⁾

미스 반데 로에(Mies van der Rohe)는 1929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 독일관에 가구 디자인을 기획하였는데, 지금까지 미스에 의해 이루어진 강관 가구 디자인을 새롭게 승화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스는 바르셀로나 만국박람회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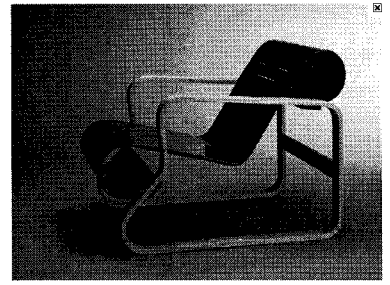


<그림 2> 미스 반데 로에, 바르셀로나 의자, 1929

관을 개방적이고 투명한 이미지를 갖도록 디자인하였다. 여기에 공간적인 탄력성과 운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미스는 자신이 설계한 공간에 자신이 디자인한 바르셀로나 의자를 그것이 놓일 장소의 정확한 내부 공간의 위치설정을 하였으며 이것은 공간분할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바르셀로나 전시회를 방문한 스페인 왕과 여왕을 위해 만들어진 X자 프레임의 바르셀로나 의자는 크롬 도금한 철판으로 연결부가 없이 이어진 강철 뼈대로 구성되어있다. 미스의 의자디자인에는 절제된 대중적인 합리성과 기능성을 기초로 하고 배치할 공간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진다.⁶⁾

알바 알토(Alva Aalto)는 천연자원인 자작나무 숲의 영향을 받아, 당시의 의자 프레임의 주재료인 강철관을 탄력적인 자작나무로 대체하였으며, 건축과 가구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과 인체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해야 한다고 믿었다. 존 E. 버차드(John E. Burchard)는 「Architectural Record」 1959년 1월호에 ‘알토는 계단, 테라스, 방, 벽들이 보통 크기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며, 또 그것을 그의 가구에 응용시켰다.’라고 알토의 디자인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알토의 자연에 대한 이해는 항상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가장 근접한 가구디자인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다. 1923-1933년 파이미오(Paimio)에 있는 결핵요양소를 위해 생산된 리본모양의 프레임에 달려있는 굴곡진 합판 좌석형태의 파이미오 의자는 최초로 인간공학을 고려한 의자이다. 이것

은 표준화 치수와 형태로 환자를 위해 디자인된 성형합판 의자이다. 이 의자의 유려한 선은 알토의 곡선적인 벽들과 굴곡진 천장과 조화되어 건축물을 완성시킨다.⁷⁾ 이렇



<그림 3> 알바 알토, 파이미오 의자, 1931

듯 알토의 가구는 각 공간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핀란드 자연의 특성과 기술적, 경제적 요소를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서 세부 디테일 및 가구에 이르기까지 종합예술의 추구로 제작된 것이다.⁸⁾ 즉, 가구에 있어 근대성은 공간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표 1> 근대성과 가구디자인의 전개

근대성	근대거장과 중심사상	가구디자인전개
기능성	르 꼬르뷔제/ 순수주의	기능주의
	르 꼬르뷔제/ 기계미학	표준화, 대량생산
	알바 알토/ 유기적	인간공학
공간성	르 꼬르뷔제/ 기하학적	합리적
	미스 반데 로에/ 투명성	공간 분할
	미스 반데 로에/ 대중주의	상호 유기적
	알바 알토/ 지역주의	자연의 모티프

2.2. 기능적 가구

(1) 기능성과 단순성

19C 빅토리아 양식의 실내장식과 가구는 부르주아들의 부와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가구 스케일을 크게 하고 공간을 가구로 가득 채웠다. 이 시대의 가구는 제품의 구조와 기능보다는 표면효과에 치중한 장식과다의 양상으로 나타났는데⁹⁾ 이에 대해 르 꼬르뷔제는 가구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지적하고 진정한 가구를 위해서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주거공간과 관련된 근대 디자인의 개혁은 가구에 대한 질문을 과감하게 던지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착수될 수 없으며, 이것은 근대건축에 합당한 위상을 표현하기 위한 가구 개혁이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다.

르 꼬르뷔제는 전통적인 가구는 비효율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방을 혼잡하게 할 뿐이라고 그 모순점을 언급하면서 거대한 크기의 가구들을 주

5) 이진영,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4, p.165
6) 이란표, Ludwig mies van der Rohe의 가구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5, p.139 재서술

7) 배소현, 현대 건축가가 디자인한 가구에 나타난 모더니즘, 영남대 석사논문, 1996, pp.55-59 재서술
8) 이진영,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4, pp.166-167
9) 오영근, 세계가구의 역사, 기문당, 서울, 1999, p.118

거에서 불필요한 요소로 보았다. 르 꼬르뷔제는 주택을 살기위한 기계¹⁰⁾라고 주장하며 주거공간의 표준화와 기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능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보았다.

(2) 기계화와 대량생산

“안락을 위해, 우리의 일을 쉽게 하기 위해, 극도의 피로를 피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재충전하기 위해 즉, 우리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또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위협하는 난장판에서 우리를 떼어내기 위해, 우리는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불유쾌한 임무들과 사고들을, 대화자에 따르면 삶의 풍성함과 다양성을 정확히 만들어내는 단조롭고 고된 일을 피해왔다. 덧붙여 가구는 살아있는 기계이고 인간 수족으로서의 요구에 응하는 유형으로서의 사물이다. 앉기 위한 의자들, 작업하기 위한 테이블, 빛을 주는 장치들, 쓰는 일을 하기 위한 기계들, 정리하고 보관하기 위한 선반들이 그것들이다.”¹¹⁾라고 르 꼬르뷔제는 언급한다.

이와 같이 르 꼬르뷔제는 가구를 건축과 동일한 논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가구는 일하고 식사하기 위한 탁자, 먹고 일하기 위한 의자, 다른 방식으로 쉬기 위한 서로 다른 모양의 안락의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칸막이 선반이며, 연장이고, 또한 봉사자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한다.¹²⁾ 그는 탁자, 의자 등 가구를 설명하는데 있어 일관적으로 그것들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가구의 존재 목적이 생활을 위한 도구임을 부각시키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 도구로서의 가구 사용은 기계화와 대량생산에 발맞추어 단순하면서도 사용하고자하는 기능에 충실한 형태와 개념으로 우리 생활 공간속에 등장하였다.

(3) 신체와 표준화

가구에서 도구적 본질을 되찾기 위해 르 꼬르뷔제가 탐구했던 것은 신체와 가구요소의 관계였다. 그는 필요 이상의 거대한 가구를 버리고, 신체치수에 기준 한 가구를 요구했고, 이것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신체 치수를 모델로 삼은 모듈러(Modulor)를 창안했다. 르 꼬르뷔제의 모듈러는 조정선과 황금분할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비례 격자로부터 시작되어 완성에 이르는데, 1942년 모듈러를 위해 작업을 시작했던 르 꼬르뷔제는 3년 뒤 1945년에 마르세이유 다비타시용으로 첫 적용 사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모듈러는 평면, 입면, 단면 치수뿐만 아니라 다비타시용에 삽입된 가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

게 적용되었다.¹³⁾ 르 꼬르뷔제의 황금모듈러는 신체의 치수를 기준으로 도구와 공간 사용을 표준화하는 근간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확대되어 오고 있다.

2.3. 공간적 가구

(1) 공간의 효율성, 경제성, 융통성

르 꼬르뷔제는 한 벽면에 창문, 칸막이, 붙박이 수납장을 그려 상당량의 공간을 절약하고, 공간속에서 인간이 신속하고 정확한 몸동작으로 주위를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시간을 아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구는 공간의 효율성, 경제성, 융통성을 되살려 달라져야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공간은 인간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요소이다. 바닥, 벽 천장으로 공간이 구성되면서 적용된 가구는 인간의 동선과 활동 영역에 영향을 주며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가구는 공간구성의 연속선상에서 인간의 행위를 수용하며 공간과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적 가구는 공간과 가구의 관계를 하나의 틀로 사고하여 굳이 별도의 가구를 놓지 않아도 공간과 가구의 기능이 결합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공간적 가구는 건축요소와 일체화된 조형적 구조물로서 공간의 쓰임을 향상시켜 주면서 실내에서 공간으로 정의되는 것을 포함하는 또 다른 의미와 형태를 부여한다.¹⁵⁾ 이것은 공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준다.

가구는 실내 공간 속에 단순히 배치되는 개념이 대부분이었으나, 근대를 통한 공간적 가구의 등장으로 가구는 바닥에 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갖추어진 공간속에 벽을 이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¹⁶⁾ 또 다른 영역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2) 도미노 시스템과 칸막이벽

공간적 가구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한 대표적 건축가인 르 꼬르뷔제는 벽체 안에 수납장을 짜 넣는 방식으로, 혹은 벽이나 기둥과 같은 건축요소에 가구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내공간에서 이동식 가구의 수를 줄여 공간의 형태를 단순화 시키고자 하였다.

르 꼬르뷔제는 하중으로부터 벽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기둥 구조로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도미노 시스템(Dom-ino system)을 창안하였다. 이것은 근대적 가구의 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1914년에 창안된 도미노 시스템은 3개의 슬리브, 6개의 기둥 그리

13) 하성경, 룡상 성당의 가구요소와 형태구성의 상관관계, 한남대석론, 2002, pp.20-22

14) Le corbusier, op.cit., 이관석 역, p.111, 제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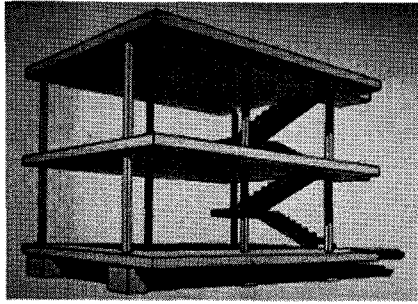
15) 김용립, 구아쓰미 쓰게일의 고정식 가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0.9, pp.1-2

16) 김현범 외,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5, p.227, 제서술

10) Le Corbusier, Le CORBUSIER :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서울, 2001, p.52

11) Le corbusier, 오늘 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pp.94-96

12) Le corbusier, op.cit., 이관석 역, p.108



<그림 4> 르 꼬르뷔제, 도미노 시스템, 1905

은 슬라브 끝선과 일치하지 않고 안으로 후퇴 배치되어 캔틸레버를 만들었다. 기둥 구조라는 것만으로 이전의 벽식 구조에 비해 자유로운 입면이 보장되어 가구와 벽의 통합이 용이하지만 기둥을 후퇴 배치함으로써 자유로운 입면을 만들고, 캔틸레버 폭만큼 공간을 확보하여 르 꼬르뷔제가 제시한 떠창 하부의 불박이 수납장이 충분한 깊이를 갖게 된다.¹⁷⁾ 가구의 건축화가 물리적으로 된 것은 도미노 시스템 내부로부터 유추된 논리적인 결과다.

공간에서 가구, 구조 등의 요소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단순한 공간을 추구하던 근대 건축가들에게 공간적 가구는 그 이상을 실현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게 된 것이다. 공간적 가구는 건축요소에 의해 정의되는 실내를 꾸밈없이 보여주고 활동하기 편한 넓은 공간을 확보한다. 특히 공간적 가구를 형태요소로 보았던 르 꼬르뷔제 시각의 영향으로 공간적 가구가 실내공간에서 조형요소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3) 공간과 불박이장

르 꼬르뷔제는 벽과 가구를 하나로 통합시켜 ‘벽장-칸막이 벽 (parois-casiers)’이라고 명칭하고 ‘벽장-칸막이 벽’은 공간 분할과 수납의 기능을 가능케 함으로써 벽과 가구의 기능적·형태적 통합을 이루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구의 건축화가 서재에 적용되었을 때, 공간은 경제적이고, 우리의 행동과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극찬한다.¹⁸⁾

불박이장은 건축단계에서부터 벽면 안쪽을 파내 공간을 만든 다음 겹면은 벽면과 길게 한 장으로 된 이동시킬 수 없는 고정된 가구이며¹⁹⁾, 불박이 가구를 통해 공간 분할이 가능하고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불박이 가구 등과 같이 공간에 침투되어 공간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식은 지금까지 가구를 공간에 놓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간적 가구의 사용은 실내를 구성함에 있어 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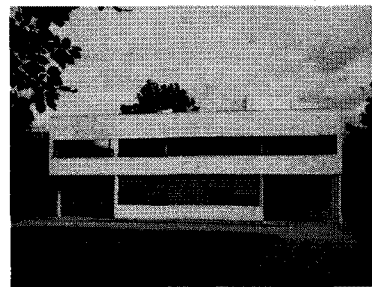
고 2개의 계단으로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르 꼬르뷔제는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기둥으로 지지하여 ‘자유로운 입면’을 성취하고 기둥

더 적극적인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공간적 가구에서도 많은 변화와 그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례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간적 가구의 역할에 큰 사명감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건축과 공간, 공간과 가구는 별개의 개체라기보다는 좀 더 긴밀하게 디자인에서의 연계를 고려해야한다는 생각이 디자이너들에게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²⁰⁾

다시 말해서 공간적 가구는 쓸모없는 공간을 파생시키지 않아 데드 스페이스를 줄여주며, 이동식 가구가 차지하던 면적을 줄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을 넓혀준다. 또한 공간적 가구는 공간의 형태를 단순하게 정리한다.

3. 사보아 주택의 가구사용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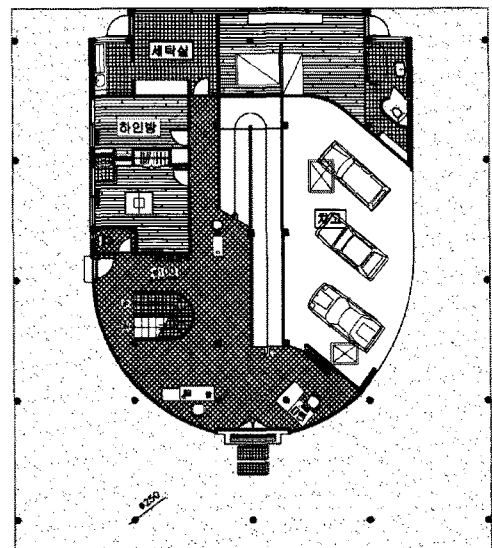
3.1. 사보아 주택의 가구 사용



<그림 5> 르 꼬르뷔제, 사보아 주택, 1928

사보아 주택은 프랑스의 보와시 지역에 지어진 르꼬르뷔제에의 대표적 주택 작품으로 기둥의 다양한 배열과 함께 자연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옥상정원의 개념을 중심으로 옥

외는 모두 흰색이며 실내에 사용된 것은 무채색으로 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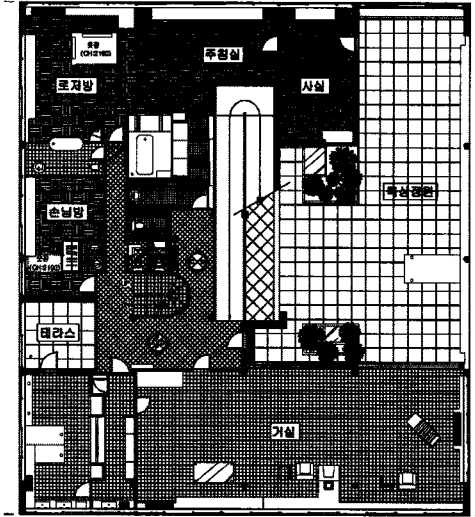
<그림 6> 르 꼬르뷔제, 사보아주택, 1928, 지층 평면도

17) 하성경, 통상 성당의 가구요소와 형태구성의 상관관계, 한남대석론, 2002, pp.18-19

18) Le corbusier, 오늘 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pp. 115-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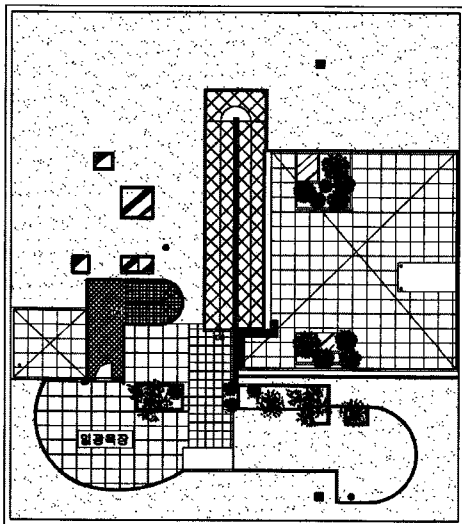
19) 이승용, 불박이장의 형태, 구조 변화와 소비자 특성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8, p.148

20) 김현범 외,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5, p.230



<그림 7> 1층 평면도

내 외부 모든 수평 띠창 아래에 선반이 있고 선반의 상판은 회색 옆면은 검은 색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하부 수납장은 광택이 있는 실버색상으로 둘레에 검은 띠로 처리되었다. 벽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수납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공간과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빌트인 가구는 현대 주택 공간 디자인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이다. 테이블로 사용될 경우 하부 원형 받침 기둥을 사용하여 변별성을 주었다. 라지에타 상부를 선반 처리하고 라지에타가 없는 대부분의 공간에 수납장으로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내 외부 원형기둥은 흰색으로 로저방의 설비 배관으로 보이는 검은 기둥, 부부방의 3개의 회색 기둥은 침대 헤드 부분이 놓일 회색 벽면과 함께 있다. 바닥에 사용된 백색 타일 등 공간은 전체적으로 옅은 색조로 처리하였다.



<그림 8> 옥상층 평면도

물을 사용하는 곳의 선반은 특히 바닥에서 띄워 처리하였다. 천정은 콘크리트에 흰색 페인트로 마감되었다. 부부 침실의 욕실벽과 부엌 간막이 수납장과 식탁 싱크 등은 80x200의 흰색 타일마감으로 되어 있다.

지층 상부에 설치된 천창 2군데는 주차장의 상부를 차지하고 1층 상부 5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천창은 빛의 유입이 곤란한 내부 복도, 붙박이장으로 구획된 욕실, 화장실 등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내부에서 여단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간의 환기 및 빛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천창은 주된 공간 보다는 빛의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어 있고 건물 전체를 감는 빛 덩어리에 의해 공간은 덩어리를 연출 색채와 재료 질감 사용에 많은 가능성을 부여한다.

그림의 평면도에서와 같이 각각의 실들은 각각의 공간이 요구하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층의 하인방은 붙박이장으로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세탁실과 화장실 역시 자유로운 형태의 칸막이벽과 선반을 사용하여 공간을 기능화하고 통로에 세면대를 두어 시선과 동선을 분리하고 있다. 1층에서는 주침실과 로저방, 손님방이 각각 붙박이장과 욕실로 분리되어 있고 창가의 선반은 수납과 테이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거실의 경우 벽난로와 선반, 테이블이 공간 사용 영역을 명확히 하며 긴 안락의자와 외부 테이블, 의자의 배치 방향은 외부 정원과의 시선과 동선의 자유로운 연결을 시도한다. 부엌의 수납장은 수납의 기능과 함께 긴 통로를 만들어 주방의 공간 분리를 가능하게 하고 긴 복도형식의 사보아 주택의 공간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옥상 층에 사용된 테이블 역시 내외 부공간의 자유로운 사용과 일치를 충실히 드러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사보아 주택은 내외부에서 지층과 1층 2층에서 공간적으로 형태적으로 연결된 가구 배치 및 붙박이장 사용으로 공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표 2> 공간구성요소로서 가구의 사용

공간구성요소	표현기법	의미
가구	입면의 연속성	선반, 테이블
	공간 성격의 구체화	붙박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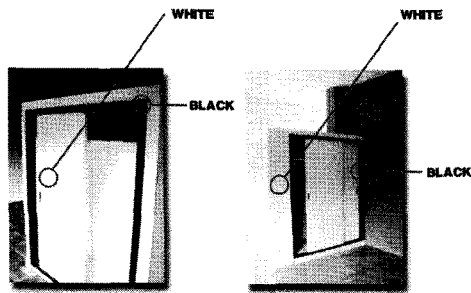
3.2. 공간구성요소로서 가구사용 특성

사보아 주택에서 공간 구성 요소로서 가구의 사용은 선반과 테이블을 통한 입면의 연속성과 붙박이장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공간의 성격이 구체화되었다. 건축 공간속에 표현된 가구의 요소를 붙박이장, 테이블, 선반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각각은 구조체를 지지하여 선반의 기능을 하거나 수납의 기능, 공간을 분리하고 시선의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색채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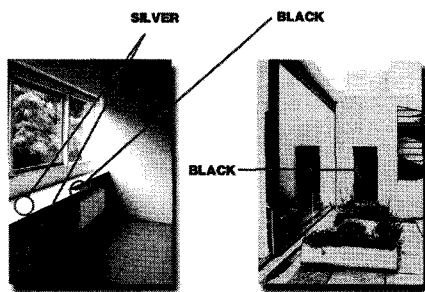
향을 주고받으며 강조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공간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전체적 배열을 정리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며 건축가의 기본적인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표현하고 있다.

불박이장은 부부방과 손님방에서 화장실과 침실을 분리하고, 아들 로저방과 부엌에서 주공간과 부속공간을 분리하면서 수납 기능을 하고 있다. 선반의 경우 하부수납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밖에 벽체선반을 이용한 수납형으로 구분한다. 거실과 로저방, 부부방, 손님방, 부인용 사실 모두 하부수납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혼용되어 있으며 수평 띠창의 하부에서 선반의 기능을 한다. 테이블은 내 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으며 부인용 사실과 거실, 부엌에서 기둥과 벽체를 지지하는 받침기둥을 사용하고 이 받침기둥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분리되어 사용되었다. 옥외공간의 경우 외벽을 지지하고 흰색의 받침기둥으로 선반을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에 사용된 색채에 있어 벽면의 색채 사용과 입면의 연속성을 갖으며 있고 특히 부재와 테두리 부분은 흰색과 검정으로 색채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림 9> 1층 평면도



<그림 10> 가구 부재의 색채 사용

(1) 형태의 적극적 반영

건축가가 외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형태 어휘는 공간 속 가구에서 표현되어져 내외부의 일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빌라 사보아 부부 사실 창문 아래의 선반, 옥상 정원과 부엌의 테이블에 사용된 받침기둥은 사보아 주택의 필로티 형식을 다른 스케일로 다

<표 3> 사보아 주택의 가구종류별 사용 특성

종류 (기능)	타입	특징	사용위치	사진	용도
불박이장	A	화장실과 침실의 분리	부부방 손님방		공간분리/수납기능
	B	주공간과 부속공간의 분리	로저방 부엌		
선반	C	하부수납장 有	거실, 로저방 부부방, 손님방 부인용사실		수평띠창/하부선반기능
	D	하부수납장 無	거실, 로저방 부부방, 손님방 부인용사실		
	E	벽체선반수납	부부방 출입구벽면		벽면활용/수납기능
테이블	F	내부공간	부인용사실 거실		기둥지지, 벽체지지/검은색 받침기둥
			부엌		선반지지/흰색 받침기둥
	G	옥외공간	옥상정원, 일광욕장		외벽지지, 선반지지/흰색 받침기둥

시 표현하고 있다. 부부 침실의 경우 공간의 분할을 확실적인 벽 처리로 하지 않고 부부 욕실의 자연스러운 가구처리로 공간을 분할하고 있어 자유로운 평면을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가구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가 되어 시선을 집중시킨다.

(2) 동선과 시선의 변화

손님방의 경우 역시 불박이장으로 화장실과 침실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아들 로저방의 불박이장은 수납기능과 함께 공간을 주공간과 학습을 위한 부공간으로 구별하고 있다. 부엌의 벽면 수납장 역시 부엌의 주된 기능공간과 팬트리를 위한 통로로 주공간과 부공간으로 분할하여 막히지 않으면서도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 주고 또 공간과 공간을 분할하여 각각의 공간 성격을 명확히 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간속에 의도된 가구의 경우 수납 기능과 함께 가변성이 크다. 가구는 단위 공간 내 또한 공간 사이에 배치

되어 공간 한정을 통해서 동선을 형성한다. 불박이가구는 칸막이벽의 기능과 함께 시선의 방향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시선의 방향 조절이란 가구를 통해서 시선을 차단하여 시선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시야를 확장시켜 동선의 진행을 계속되게 하거나 반대로 시야를 좁혀 동선의 진행 방향을 바꾸게 한다. 인간의 행태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4. 결론

건축에서 공간화되어 적용된 가구의 양상은 사보아 주택의 사례와 같이 불박이 가구의 형태로 건축 계획 시 이미 고려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 공간의 형태와 공간 불륨을 변화시킨다. 건축가가 외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형태 어휘는 공간 속 가구에서 표현되어져 내외부의 일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공간구성요소로서의 가구는 입면의 연속성과 공간분리를 통해 건축 형태요소의 변형을 주는데 이때 바닥, 천장, 벽과 같은 형태요소는 공간의 형태를 결정하고 이들 중 벽이 가장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이상과 같이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는 가구의 사용과 배치하는 가구가 가구 자체로서의 역할 이상으로 공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간을 수용하거나 변화시켜 공간에 영향을 끼치고 사용자의 행위를 제어하고 공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사용자가 하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간을 직접 사용하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테드 스페이스 없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기능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건축공간 안에서 가구의 사용과 적용에 있어 처음부터 고려된 건축 형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간 분리와 연결을 통한 동선과 시선의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은 공간구성요소로서의 가구를 적절히 이해하고 건축공간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공간의 기능을 수용하면서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인간의 행위와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간화된 가구의 사용과 배치는 건축물 내 외부의 통일된 형태와 디자인과 기능에 있어 완성을 찾을 수 있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1. Jean-Louis Cohen, Le Corbusier, TASCHEN, 2006
2. W. Boesiger, Le Corbusier Oeuvre comple'te volum 6·1952-57, 2006
3. Frampton, Kenneth Le Corbusier : architect of the twentieth century, H.N. Abrams
4. Geoffrey H. Baker, 르코르뷔제 건축의 형태분석, 이승호 역, 건축시대, 1990
5.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7

6. 정진국, 르 코르뷔제가 선택한 최초의 색채들, 공간사, 2001
7. Le Corbusier, Le CORBUSIER :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서울, 2001
8. 오영근, 세계가구의 역사, 기문당, 서울, 1999
9. 이승용, 불박이장의 형태 구조 변화와 소비자 특성연구, 홍익대 석론, 2008
10. 배소현, 현대 건축가가 디자인한 가구에 나타난 모더니즘, 영남대 석론, 1996
11. 김용립, 구아쓰미 쓰게일의 고정식 가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0.9
12. 하성경, 통상 성당의 가구요소와 형태구성의 상관관계, 한남대 석론, 2002
13. 이진영, 르 코르뷔제와 알바 알토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4.10
14. 이란표, Ludwig Mies van der Rohe의 가구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5.2
15. 김현범 외, 현대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5

[논문접수 : 2010. 08. 31]
 [1차 심사 : 2010. 09. 19]
 [게재확정 : 2010. 10. 08]